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국내 첫 일반인 대상 스마트양식 교육

한국어촌어항공단, 전남대 스마트수산양식연구센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2일부터 5일간 전남대 여수캠퍼스 스마트수산양식연구센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첫 스마트양식 기술 교육(초급과정)을 실시한다. <사진>

이번 교육은 친환경·스마트양식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신 스마트 양식 기술을 알리고, 주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마트 양식의 개념 및 국내외 동향, 스마트 양식장 수처리 시스템, 자동차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제 시스템, 데이터 관리, 기자재 및 설비, 시스템 적용 사례, 경영 및 투자 전략 등 스마트 양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 또 전남대 어수캠퍼스에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양식 공정 및 주요 장치, 스마트 유수식 양식장 시스템 등을 실습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친환경 양식 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교육부터 창업까지 원스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남대 스마트수산양식연구센터 등은 조만간 스마트 양식 심화 과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사로는 김태호 전남대 스마트수산양식연구원장, 에프엔에스(주) 한정호 박사, 권인용 전남대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교수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현장 경험자들이 참여했다.

김태호 전남대 스마트수산양식센터 센터장은 "노동집약적인 기존 양식 시스템을 기술집약형으

로 혁신해야 할 때이며 특히 국내 양식장의 대부분이 전남에 있는 만큼 전남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어촌 곳곳에 정착해 어촌과 수산업의 발전에 공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기술인들 전국기능대회서 14개 메달 획득

광주지역 숙련기술인들이 제 59회 전국기능대회에서 14개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사진>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경남 구미에서 열린 전국기능대회에서 광주 선수단은 금메달 2개를 포함해 14개의 메달을 획득, 38명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 숙련인들은 10개의 메달을 획득한 지난 대회보다 나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광주선수단은 모바일로보틱스, IT네트워크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보안 등 IT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AI도시 광주' 슬로건에 걸맞은 결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



대회는 단순한 기술 대회를 넘어 '국가 AI 데이터 센터' 운영 등 인공지능과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광주시가 비전을 실현하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박형원 목포 솔튼병원 원장, 돌봄이웃 환경개선금 기부 9월 5·18유공자에 김용대씨



전남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터 박형원 목포솔튼병원 원장이 지난 29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돌봄이웃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 4000만 원을 기탁했다. <사진>

성금은 늘봄장애인후원회, 목포중증장애인애인회 등 총 6곳의 수행기관에 전달된다.

박 원장은 "우리 주변의 돌봄이웃을 돕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104호 아너로 가입해 총 2억 원을 기부했으며 배우자인 유기영 회원(전남 124호)과 전남 부부 17호 아너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소장 김범태)는 2일 9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故) 김용대(사진)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용대 민주유공자는 1952년 4월 15일생으로 장교로 복무하다 80년 1월 예편했다. 5월 민주항쟁 당시 전남대에 재학중인 조카가 격정이 되어 시위현장에 갔다 귀가 중 차에서 떨어지는 소년을 구하려다 충격을 받고 척추를 관통당하여 하반신 마비증상이 생겼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남대, 교수 30명 퇴임식 "인생 2막 응원합니다"



전남대학교는 지난달 29일 본부 2층 용봉홀에서 2024년 전반기 교수 퇴임식을 열었다. <사진>

전남대는 연구와 교육활동에 일생을 바친 교수들에게 훈장 전수와 송공패 등을 수여하고 가족과 동료 교수, 제자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했다.

퇴임 교수들은 "기초학문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라도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

하다"는 조언과 "전남대학교는 내 삶의 전부였다. 앞으로도 전남대인으로서 끝까지 대학을 응원하겠다" 등 제자들과 대학에 대한 성원과 애정어린 당부도 함께 나왔다.

정성택 총장은 "의지가 됐던 가족들과 함께 언제나 청춘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열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번 | KBS1 | KBS2 | MBC | KBC/SBS |
|----|--|---|--------------------------------|---|
| 6 | 00 KBS 뉴스광장 |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
| 8 | 25 아침마당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
| 9 | 30KBS 뉴스 930 | 20 일일드라마 스캔들(재) |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 55 SBS 10 뉴스 |
| 10 |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 45 국회 인사청문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 30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 11 | | 00 2장 1절(재) | | |
| 12 | 00 KBS 뉴스 12 55 1020 세대의 눈으로 본 KBS | 15 하이엔드 소금쟁이(재) | 00 12 MBC 뉴스 25 2024 파리패럴림픽 |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
| 1 |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 30 골쟁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 25 헬로키즈 TV생물도감 55 2시 뉴스 외전 | 55 닥터 365 |
| 2 | 00 KBS 뉴스 10 2024 파리 패럴림픽 함께 투게더 앙상블 | | | 00 뉴스브리핑 |
| 3 | |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상상꾸러기 꾸다 2(재) | 55 기본 좋은 날 | |
| 4 | 00 사사건건 | 00 TV 유치원(재) 30 어린이 동물티비(재) | 55 5시 뉴스와 경제 | 00 이경규의 경이로운 습관(재) |
| 5 |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 00 모양새 친구들 15 다이노 파워즈 3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 10 트로트 클래스 3 |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
| 6 | 00 6시 내고향 | 00 경제콘서트 40 2TV 생생정보 | 05 남도 탐구생활 |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
| 7 |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 50 일일드라마 스캔들 | 05 용감무쌍 용수정 40 MBC 뉴스데스크 | 50 SBS 8 뉴스 |
| 8 | 30 수지맞은 우리 | 30 하이엔드 소금쟁이 | | 30 KBC 8 뉴스 |
| 9 | 00 KBS 뉴스 9 | 45 스모킹 건 | 00 청소년 브라이언 |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
| 10 |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 45 아이 러브 스포츠 | 20 PD수첩 | 20 정글밥 |
| 11 | 30 영생앨범 선(재) | 10 완벽한 가족 | 20 100분토론 | |
| 12 | 00 KBS네트워크특선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50 생활의 발견 | 25 2024 파리 패럴림픽 중계식 | 45 TV예술무대 통영국제음악제 | 00 도시락 스페셜 |

EBS1

| | | |
|----------------------|---|--|
| 05:00 왕초보 영어 | 10:50 최고의 요리비결 | 17:10 한글용사 아이야재) |
| 05:30 클래스 e | 11:20 세계테마기행 <궁금한 이야기, 중국 -천년의 고 촌락을 찾아서> | 17:40 메탈카드S 강철의 귀환 |
| 05:50 한국기행 | 12:00 EBS 뉴스 12 | 18:10 EBS 뉴스 |
| 06:10 세계테마기행 | 12:10 귀하신 몸 |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
| 07:00 꼬마버스 타요 |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 19:20 고향민국 |
|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 19:50 극한직업 |
| 07:30 슈퍼월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 20:40 세계테마기행 <내 생애 한번은 무스탕 -마지막 왕곡, 로만탕> |
| 07:45 메탈카드S 강철의 귀환 | 15:15 클래스 e | 21:35 한국기행 <한방 기행 2부 산중 보물 찾기> |
| 08:00 당동명 유치원 | 15:55 블록스 | 21:55 건축탐구 - 집 |
| 08:20 한글용사 아이야 | 16:10 당동명 유치원(재) | 22:50 EBS 다큐프라임 |
| 08:35 다이노스티 공룡수호대 | 16:30 페퍼 피그 |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
| 08:50 사사 앤 마일로 | 16:40 마사와 곰 | 24:00 EBS 비즈니스 리뷰 |
| 09:20 자이언트 팽TV | 16:55 슈퍼월스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 |
| 09:40 박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2 | | |
| 10:30 한국기행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3일(음 8월 1일 庚午)

| | |
|---|---|
| <p>36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열매는 미미하였다. 48년생 공명 정대한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60년생 현재는 하찮더라도 장래에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었다. 72년생 양자택일해야 할 길목에서 필히 갈듯하게 되리라. 84년생 망심하다가는 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 96년생 기교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84</p> | <p>42년생 가변적인 정황에 맞춰서 진행하자. 54년생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자. 66년생 참으로 의미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78년생 투명하고 정확해야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90년생 냉철한 이성에서 비롯된 생각은 복주머니를 만들리라. 02년생 판세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1, 66</p> |
| <p>37년생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49년생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될 것이니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61년생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면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73년생 희비가 쌍곡선을 그리며 짝수하는 위상이다. 85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될 것이다. 97년생 선택의 폭이 커진다. 행운의 숫자 : 34, 82</p> | <p>43년생 반드시 이행해야 차질을 빚지 않으리라. 55년생 갈 운이므로 기대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67년생 제반사건이 안정된 귀로 진입하는 동세로다. 79년생 빠른 속도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91년생 혼란스러울 때 유익한 조언자가 나타나는데 동세이다. 03년생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80</p> |
| <p>38년생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너무나 공허해졌다. 50년생 인간적인 관계 설정과 교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62년생 미래에서 해마다가 간신히 길을 찾게 되는 이치이다. 74년생 빠른 속도의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86년생 표리부동하니 주의하지 않으면 속는다. 98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3, 81</p> | <p>44년생 보편타당해야만 설득력을 얻게 된다. 56년생 복합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68년생 변경하지 말고 현행대로 실행 하는 것이 유익하다. 80년생 대체로 순조롭게 전개될 것이니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92년생 격정에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04년생 본질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8, 85</p> |
| <p>39년생 세심하게 살펴보는 진중함을 필요로 한다. 51년생 감을 버리고 임하는 것이 효용적이다. 63년생 한 곳에만 제대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5년생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으나 마음 놓고 지내도 된다. 87년생 같은이니 행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었다. 99년생 몸에 밴 악습 때문에 황당한 경우가 만들어지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05, 89</p> | <p>45년생 주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57년생 보는 이의 마음만 안타깝게 할 것이다. 69년생 당분간 맡았어 인정받을 수도 있었다. 81년생 현재의 손익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93년생 제대로 호평받게 되는 부딪힘이 있다. 05년생 이타심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면 길하다. 행운의 숫자 : 29, 54</p> |
| <p>40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소통할 수 있느니라. 52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64년생 최소화 하는 것이 경제성에 일조 하리라. 76년생 내심에서 내키지 않으면 수용할 필요가 없느니라. 88년생 소금 팔리 갈라니 까 비가 내리는 격이다. 00년생 재앙은 지극히 조그마한 데에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7, 60</p> | <p>46년생 작품의 성정을 축진하는 햇볕이 내리쬐고 있으니 흠뻑 흡수하고 제대로 활용하자. 58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느니라. 70년생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다. 82년생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하겠다. 94년생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06년생 빠른 속도의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40, 98</p> |
| <p>41년생 혼동하기 쉬운 날이니 만전을 기하자. 53년생 부담감을 버리고 임하는 것이 맞다. 65년생 괜히 나섰다가는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77년생 길방으로 가다가 잡혔으니 사소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89년생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커다란 진전이 보인다. 01년생 잘 따져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55</p> | <p>35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그 어떠한 정후도 보이지 않는다. 47년생 요령이 있어만 능률적이다. 59년생 당분간 맡았어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83년생 충고에 따르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다. 95년생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야 유용하다. 행운의 숫자 : 07, 71</p> |